

『新編張仲景註解傷寒發微論·卷下』에 대한 연구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鐘和 · 申榮日*

A Research on the Last part of the 『Sinpyeonjangjunggyeongjuhaesanghanbalmilon(新編 張仲景註解傷寒發微論)』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Kim Jong-Hwa · Sheen Yeong-il

In yang brightness disease, Capillaris dedoction, Phellodendron dedoction and Ephedra forsythia rice bean dedoction treat generalised yellowing yellow inhibited urination, absence of sweating, thirst, and abdominal fullness.

Basic lesser yang disease pattern with bitter taste in the mouth dry throat dizzy vision alternating aversion to cold and heat effusion chest and rib-side fullness taciturnity with no desire to eat heart vexation frequent retching and pulse that is fine and stringlike treat with Minor bupleurum dedoction.

Three yin disease should be treated by warming the spleen and drying dampness, requiring urgent warming, using formulae such as Center-rectifying dedoction, Aconite dedoction and Counterflow cold dedoction.

Key Words: SangHanBalMiLon

I. 序論

張仲景은 『素問熱論』의 基礎위에서 모든 外感病의 變化 過程을 考察하였고, 病邪가 어느 經絡에 침범하였는지와 臟腑의 盛衰程度, 환자의 精氣의 強弱 및 宿疾의 有無 等の 條件에 根據하여 發病의 規律을 찾았으며 아울러 많은 새로운 見解를 提示하였다.

『傷寒雜病論』은 外感病과 雜病에 대해 六經辨證

의 원칙 아래 그 特徵을 詳細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한 論證이 確實하며 施治가 精確하여 外感病뿐만 아니라 雜病에서도 具體적으로 施用할 수 있는 辨證論治의 원칙을 제시하여 후세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傷寒雜病論』은 戰亂으로 인한 災害로 인하여 原著는 오래지 않아 亡失되었다가, 그 중에 傷寒과 有關한 內容이 晉代 王叔和의 整理收集을 통하여 『傷寒論』一書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雜病部分도 失傳되었다가 北宋時에 翰林學士 王洙가 翰林院의 古書들 중에서 『金匱玉函要方』을 찾았다. 그 뒤에 林億 등이 校訂할 때에 이미 전해져 있는 『傷寒

*교신저자: 申榮日,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61) 330-3511, maggie@dsu.ac.kr

論』을 考慮하여 雜病과 婦人病을 治療하는 部分과 方劑를 各科症候로 分類하여 冊名을 『金匱要略方論』이라고 하였으며, 『金匱要略』이라고 簡稱하기도 한다.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醫家들은 仲景의 本旨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宋代 朱肱은 陰陽 表裏 寒熱에 역점을 두어 다시 條文을 배열하고 溫病 時氣病 등의 새로운 이론과 이에 따른 方劑를 추가하였고, 許叔微는 湯證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傷寒의 각각의 증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여 傷寒의 重要한 證候의 病機, 病變 및 治療方法을 歌訣로 編成하여 學者가 要點을 把握하고 記憶하는데 便利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傷寒百證歌』이다. 또한 후에 『傷寒百證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과 論桂枝湯用赤白芍藥不同 論傷寒慎用丸子藥 論表裏虛實 論滑脈 등의 作者의 知識과 經驗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을 첨부하여 『傷寒發微論』을 지었는데, 실로 傷寒의 病證에 따른 연구의 효시였다. 金代 成無己 등은 王叔和의 편제에 따라 주해를 가하였고, 明代 柯琴 등은 湯證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고, 尤怡 등은 治法에 따라 六經을 나누었다.

『傷寒發微論』은 金代 成無己의 『傷寒明理論』, 明代 陶華의 『傷寒明理續論』이 나오는 토대가 되어 증후의 病機 病變을 감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著者는 『傷寒發微論卷上』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傷寒病에 대한 診斷方法, 治療原則 및 數種의 질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傷寒發微論卷下』에 대한 연구가 傷寒溫病學을 연구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여 原文에 懸吐하고 國譯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II. 研究方法

1. 原文 및 註釋은 人民衛生出版社의 『傷寒發微論』을 기준하였다.

2. 註釋가운데 『內經』 『難經』 『傷寒論』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은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3. 翻譯은 原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용구나 따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III. 本論

1. 論表裏虛實

【原文】

傷寒治法엔 先要明表裏虛實이니 能明此四者면 則 仲景三百九十七法을 可坐而定也라 何以言之오 有表實하며 有表虛하며 有裏實하며 有裏虛하며 有表裏俱實하며 有表裏俱虛하니 予於表裏虛實歌中에 嘗論其事矣라 仲景麻黃湯類는 爲表實而設也요 桂枝湯類는 爲表虛而設也며 裏實 則承氣之類요 裏虛 則四逆理中之類 是也라 表裏俱實은 所謂陽盛陰虛니 下之則愈也요 表裏俱虛는 所謂陽虛陰盛이니 汗之則愈也라 嘗讀 魏志華佗傳컨대 有府吏倪尋과 李延이 共止俱頭痛身熱하야 所苦正同이러니 佗曰 尋은 當下之요 延은 當發汗이러하니 或難其異어늘 佗曰 尋은 外實이요 延은 內實 故로 治之宜殊라하니라 此는 所謂能明表裏虛實者也라

【國譯】 表裏虛實을 論함

傷寒의 治療法에는 表裏虛實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 네 글자를 밝힐 수 있으면 즉, 仲景의 397法을 알아서도 精通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가? 表實이 있고, 表虛가 있고, 裏實이 있고, 裏虛가 있으며 表裏俱實이 있고, 表裏俱虛가 있는데, 내가 表裏虛實歌 중에 일찍이 그 까닭을 논하여 놓았다. 仲景의 麻黃湯類는 表實의 證을 위해 있는 것이오, 桂枝湯類는 表虛의 證을 위해 있는 것이

오, 裏實의 證인 즉 承氣湯의 부류이고, 裏虛의 證인 즉 四逆湯과 理中湯의 부류이다. 表裏가 모두 實함은 이른바 陽盛陰虛이니 下法을 사용하면 나올 것이오. 表裏가 모두 虛함은 이른바 陽虛陰盛이니 發汗을 시키면 나올 것이다. 일찍이 『魏志·華佗傳』을 읽어보니, 府吏인 倪尋과 李延이 모두 다만 頭痛과 身熱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정확히 똑같았다. 華佗는 尋은 마땅히 下法을 써야하고, 延은 마땅히 發汗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이가 그 차이를 물으니, 華佗가 말하기를 尋은 밖이 實하고, 延은 안이 實하기 때문에 治法이 마땅히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소위 表裏虛實을 능히 밝힌다는 것이다.

2. 論桂枝肉桂

【原文】

仲景이 桂枝湯에 用桂枝者는 蓋取桂之枝梢細薄者爾니 非若肉桂之肉厚也라 蓋肉桂厚實하여 取五臟用之者니 取其鎮重也요 桂枝輕揚하여 治傷寒用之하니 取其發散也라 今人例用之하니 是以로 見攻寡라

【國譯】 桂枝와 肉桂를 論함

仲景이 桂枝湯에서 사용하는 桂枝는 대개 계수나무의 가지가 가늘고 얇은 것을 취한 것일 뿐이니 肉桂처럼 껍질이 두꺼운 것은 아니다. 대체로 肉桂는 두껍고 實하여 五臟을 치료할 때 사용하니 그 鎮重함을 취한 것이요, 桂枝는 가벼워서 傷寒을 치료할 때 사용하니 그 發散함을 취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둘 다 사용하니 이러한 까닭에 치료되는 것이 적어진다.

3. 論滑脈

【原文】

仲景이 云翁⁽¹⁾奄⁽²⁾沈을 名曰滑이니 沈爲純陰이요 翁爲正陽이라 陰陽和合 故로 名曰滑이라 古人이 論滑脈에 雖云往來前卻⁽³⁾하고 流利展轉⁽⁴⁾하며 替替然⁽⁵⁾하야 與數相似라하나 曾未若仲景三語而足也라 翁은

張也니 言脈升而開張也요 忽焉而沈은 言脈降而復也요 奄은 言奄忽之間에 與奄觀銓艾⁽⁶⁾同義니 仲景論滑脈이 可謂諦當矣라 然이나 其言雅하니 恐淺識者未易曉라

【注釋】

- (1) 翁: 脈狀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퍼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 (2) 奄: 忽然, 脈狀이 빠른 모양이다.
- (3) 前卻(전각): 進退, 나아감과 물러감.
- (4) 展轉(전전): 轉轉, 앞치락 뒤치락 하다. 『脈經校釋』에 ‘滑脈의 매끄러운 것을 형용한 것이다.’ 고 하였다.
- (5) 替替然(체체연): 『脈經校釋』에 ‘동글동글한 脈狀이 계속 交替되면서 이어지는 모양이다.’ 고 하였다.
- (6) 銓艾(질애): 낮으로 벼를 베는 뜻으로, 벼이삭을 말한다.

【國譯】 滑脈을 논함

仲景이 이르기를 翁脈 奄脈 沈脈이 나타나는 것을 滑脈이라고 하니 沈脈은 純陰이 되고, 翁脈은 正陽이 되어 陰陽이 화합하므로 滑이라 이름한 것이다. 古人이 滑脈을 논함에 비록 ‘왕래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매끄럽고 계속 이어져 동글동글한 것이 계속 교체되는 것 같아서 數脈과 비슷하다.’고 하였으나, 일찍이 仲景이 翁脈 奄脈 沈脈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 것만은 못하다. 翁脈은 퍼져나가는 것이니 脈狀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퍼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갑자기 沈脈이 나타난다는 것은 脈狀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奄脈은 잠깐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니 잠깐 동안 벼이삭을 만지는 것과 같다는 뜻이니, 仲景이 滑脈을 논한 것이 명료하고 마땅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말이 우아하니 지식이 얇은 사람이 쉽게 깨닫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띠고 곤장을 맞은 것처럼 아프며 인후가 아픈 證을 말한다.

【國譯】陰病은 땀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 論함
仲景이 156條에서 ‘脈이 비록 沈緊하더라도 少陰病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유는 陰病은 땀이 나지 않는데 지금 머리에서 땀이 나므로 少陰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¹⁾라고 하였고, 또 ‘寸關尺의 脈이 모두 緊하나 도리어 땀이 나는 것은 亡陽이니 이것이 少陰에 속하는 것이다.’²⁾라고 하였다. 대저 陰虛한 사람이 땀이 많은데 여기에서 陰病은 땀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니 어째서 인가? 내가 일찍이 虛汗의 證을 깊이 탐구하였는데 또한 거기에도 陰陽의 구별이 있었다. 陽病의 自汗證에는 아홉 종류가 있는데 모두 각각에 알맞은 治法이 있거늘, 오직 陰毒만은 이마와 손등에 식은 땀이 나고 심하면 세수한 것처럼 많이 흐른다. 그러나 이것은 陽은 虛하고 陰은 盛하여 亡陽證으로 장차 陽이 脫하려는 것이니 반드시 죽게 된다. 仲景이 이 篇에서 논한 것은 邪氣가 半은 表에 있고 半은 裏에 있으므로, 먼저 ‘땀이 나는 것은 陽이 미약한 것이다.’라 하고, 이것은 虛汗이므로 陽이 미약한 때문이니 ‘陰證은 無汗하므로 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땀이 나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도 있다. 이로써 말하건대 陽病에는 땀이 나고 陰病에는 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하여 보면 이 뜻을 알게 된다.

6. 論林億疑白虎有差互

【原文】

仲景이 稱컨대 傷寒을 若吐下後에 七八日不解하

고 熱結在裏하야 表裏俱熱者는 白虎加人參湯主之라 하고 又云傷寒에 脈浮하고 發熱無汗하며 其表不解하면 不可與白虎湯이라하고 又云脈浮滑은 此以表有熱裏有寒이니 白虎湯主之라하야날 國朝林億이 校正하야 謂仲景이 於此表裏에 自差矣라하니 是大不然이라 大抵白虎는 能除傷寒中暈⁽¹⁾하야 表裏發熱하니 故로 此前後二證은 或云表裏俱熱이요 或云表熱裏寒이니 皆可服之宜也라 中一證이 稱表不解니 不可服者라 蓋以脈浮 無汗 發熱은 此全是傷寒表證이니 宜麻黃葛根之類也어늘 安可用白虎리요 億但見所稱表裏不同하고 便謂差互는 是亦不精不思之過也라

【注釋】

(1) 中暈: 中暑 中熱이라고 하며 暑邪를 받아 갑자기 인사불성하여 쓰러지고 身熱 煩燥 氣喘하며 脈이 虛數한다.

【國譯】林億이 白虎湯을 쓰는데 서로 차이가 있다고 의심한 것을 論함

仲景이 ‘傷寒을 吐下한 뒤 七八日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熱이 내부에 결취하여 표리가 모두 熱한 것은 白虎加人參湯으로 치료한다.’³⁾고 하고, 또 ‘傷寒에 脈이 浮하고 熱이 있는데 땀이 나지 않으며 表邪가 풀리지 않으면 白虎湯을 사용할 수 없다.’⁴⁾고 하고, 또 ‘脈이 浮滑한 것은 表에 熱이 있고 裏에 寒이 있는 것이니 白虎湯으로 치료한다.’⁵⁾고 하였다. 宋代 林億이 이를 바로잡고 ‘仲景이 여기에서 表裏에 차이를 두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대저 白虎湯은 傷寒에서 더위를 먹어 表裏에 熱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그러므로 여기의 앞과 끝의 두 證은

1)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20. “傷寒五六日 頭汗出 微惡寒 手足冷 心下滿 口不欲食 大便硬 脈細者 此爲陽微結 必有表 復有裏也 脈沈 亦在裏也 汗出爲陽微 假令 純陰結 不得復有外證 悉入在裏 此爲半在裏半在外也 脈雖沈緊 不得爲少陰病 所以然者 陰不得有汗 今頭汗出 故知非少陰也 可與小柴胡湯 設不了了者 得屎而解”
2)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35. “病人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而復吐利”

3)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23. “傷寒 若吐若下後 七八日不解 熱結在裏 表裏俱熱 時時惡風 大渴 舌上乾燥而煩 欲飲水數升者 白虎加人參湯主之”
4)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23. “傷寒脈浮 發熱 無汗 其表不解者 不可與白虎湯 渴欲飲水 無表證者 白虎加人參湯主之”
5)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24. “傷寒 脈浮滑 此表有熱 裏有寒 白虎湯主之”

表裏가 모두 熱한 것과 表는 熱하고 裏는 寒한 것을 말함이니, 모두 복용함이 마땅하다. 가운데의 一證만이 表邪가 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복용할 수 없다. 대개 脈이 浮하고 脈이 나지 않으며, 熱이 나는 것은 모두 傷寒의 表證이니 麻黃湯이나 葛根湯의 부류로 치료함이 마땅하거늘 어찌 白虎湯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林億이 단지 表裏가 같지 않다고 하는 것만을 보고 바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은 또한 精微롭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과오이다.

7. 論弦動陰陽二脈不同

【原文】

仲景이 云脈大 浮 數 動 滑은 此名陽也 脈沈 澁 弱 弦 微는 此名陰也 이라하야날 脈訣에 以動脈爲陰 以弦脈爲陽은 何也오 此是開卷第一行疑處로대 而世人不知講이라 予謂컨대 脈經所言은 分七表八裏⁽¹⁾而單言之也오 此之所論은 兼衆脈而合言之也라 大抵雜病은 各見一脈이나 唯傷寒은 必兼衆脈而見이니 何以言之오 仲景之意에 若曰浮大者陽也는 兼之以動數滑之類니 安得不爲陽이며 沈細者陰也는 兼之以澁弦數之類니 安得不爲陰이리오 故로 仲景이 論動脈에 則曰陽動⁽²⁾則汗出하고 陰動⁽²⁾則發熱이니 數脈이 見於關上호대 上下無頭尾하고 如豆大하며 厥厥動搖⁽³⁾를 名曰動也라하고 又結胸證에 云脈浮而動은 浮則爲風이요 動則爲痛이라하니 故로 兼與浮而言動脈은 則陽脈陽病也 宜矣라 仲景이 論弦脈에 則曰弦者는 狀如弓弦하야 按之不移니 弦則爲減이라하고 又曰支飲⁽⁴⁾急弦이라하며 又少陰證에 云手足寒은 脈弦遲라하니 故로 此兼遲而言弦則爲陰脈陰病也 宜矣라 故로 仲景이 傷寒脈을 不可與雜病脈으로 同一而語라 今陽證은 往往浮大而厥厥動搖하고 其沈細而弦者는 必陰證也니 何疑之有哉리오 不特此也하고 至如曰高⁽⁵⁾ 曰章⁽⁶⁾ 曰綱⁽⁷⁾ 曰櫟⁽⁸⁾ 曰卑⁽⁹⁾ 曰損⁽¹⁰⁾하야도 有從有橫하고 有逆有順이어늘 跌陽太溪之類엔 極多라 予嘗撰仲景三十六種脈法圖하니 故로 知治傷寒엔 當以仲景脈法爲本

이라

【注釋】

(1) 七表八裏: 七表脈은 浮脈 芤脈 滑脈 數脈 弦脈 緊脈 洪脈이고 八裏脈은 微脈 沈脈 澁脈 緩脈 遲脈 伏脈 濡脈 弱脈이다.

(2) 陽動 陰動: 여기에서 陽은 寸部를 陰은 尺部를 말하고, 動은 動脈이다.

(3) 厥厥動搖: 세력이 모자라 尺寸에 나타나지 않고 關部에서만 요동치는 것이다.

(4) 支飲: 飲邪가 胸膈사이에 정체되어 肺를 꺾박함으로 인해 肺의 肅降기능이 실조하여 胸悶 短氣 咳逆 不能臥의 證이 나타나는 病證이다.

(5) 高: 寸口脈에서 衛氣가 盛한 것을 高라 한다.

(6) 章: 寸口脈에서 榮氣가 盛한 것을 章이라 한다.

(7) 綱: 寸口脈에서 衛氣와 榮氣가 모두 盛한 것을 綱이라 한다.

(8) 櫟: 寸口脈에서 衛氣가 弱한 것을 櫟이라 한다.

(9) 卑: 寸口脈에서 榮氣가 弱한 것을 卑라 한다.

(10) 損: 寸口脈에서 衛氣와 榮氣가 모두 弱한 것을 損이라 한다.

【國譯】弦 動 두 脈의 陰陽이 다름을 論함

仲景은 大脈 浮脈 數脈 動脈 滑脈을 陽脈이라 하고, 沈脈 澁脈 弱脈 弦脈 微脈을 陰脈이라 하였는데⁶⁾. 『脈訣』에서는 動脈을 陰脈으로 보고 弦脈을 陽脈으로 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책을 펼쳐 보았을 때 첫번째 行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脈經』에 말하는 것은 7表脈 8裏脈으로 나뉘 하나만을 말한 것이요, 여기에서 논한 것은 여러 脈을 겸한 것으로 합쳐 말한 것이다. 대개 雜病에는 각각 한 가지 脈만 보이니, 다만 傷寒에서는 여러 脈이 겸하여 나타나니 어떠한 것을 말한 것인가? 仲景의 뜻으로는 浮脈과 大脈이 陽脈이라고 말한 것은 動脈 數脈 滑脈의 類를 겸한 것이니 어찌 陽脈이 아니며, 沈脈과 細

6) 成无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43. “凡脈大 浮 數 動 滑 此名陽也 脈沈 澁 弱 弦 微 此名陰也. 辨脈法”

脈이 陰脈이라고 말한 것은 澁脈 弦脈 數脈의 類를 겸한 것이니 어찌 陰脈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仲景이 動脈을 論하면서 ‘寸口에 動脈이 나타나면 脈이 나고 尺部에 動脈이 나타나면 熱이 나니, 關上에만 數脈이 나타나되 寸部 尺部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콩알처럼 크고 세력이 별로 없이 요동치는 것을 動脈이다.’⁷⁾라고 하였다. 또 結胸證에서 ‘脈이 浮하면서 動한 것은, 浮脈은 風邪이고 動脈은 痛症이 있는 것이다.’⁸⁾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浮脈과 더불어 動脈을 겸해서 말한 것은 陽脈이며 陽病인 것이 마땅하다. 仲景이 弦脈을 論하면서 ‘弦脈은 脈狀이 활줄과 같아 눌러도 움직이지 않으니 弦脈은 陽氣가 적어진 것이다.’⁹⁾고 하였고, 또한 ‘支飲證은 脈이 急하면서 弦하다.’¹⁰⁾고 하였으며, 다시 少陰證에서 ‘손발이 차가운 것은 脈이 弦하면서 遲하다.’¹¹⁾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遲脈을 겸하여 말한 것은 弦脈이 즉 陰脈이며 陰病인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仲景은 傷寒脈을 雜病脈과 더불어 같이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요즘의 陽證은 왕왕 浮大하다가 세력이 별로 없이 요동치고, 脈이 沈細하면서 弦한 것은 반드시 陰證이 되니 무슨 의심이 있겠는가?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寸口脈의 衛氣가 盛한 高脈과 榮氣가 盛한 章脈과 榮衛가 모두 盛한 綱脈과 衛氣가 弱한 慄脈과 榮氣가 弱한 卑脈과 榮衛가 모두 弱한 損脈에서도 縱橫과 逆順이 있거늘

趺陽脈 太谿脈과 같은 데서는 더욱더 많다. 내가 일찍이 『仲景三十六種脈法圖』를 편찬하였으니 傷寒을 치료하는데 마땅히 仲景의 脈法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8. 論中風傷寒脈

【原文】

仲景이 以浮緩脈爲中風脈이요 浮澁而緊爲傷寒脈이요 中風有汗하고 傷寒無汗이라하니 何也오 內經에 云滑者는 陰氣有餘也오 澁者는 陽氣有餘也니 陽氣有餘 則身熱無汗하고 陰氣有餘 則多汗身寒이라하니라 大抵陰陽은 欲其適平而已니 陽氣不足하면 陰往乘之 故로 陰有餘하고 陰氣不足하면 陽往從之 故로 陽有餘라 風傷於衛하면 則榮不受病 故로 陽不足而陰有餘하니 是以로 中風은 脈浮而緩하고 必多汗也라 寒傷於榮하면 則衛未受病 故로 陰不足而陽有餘하니 是以로 傷寒은 脈浮澁而緊하고 亦爲無汗也라 仲景이 辨二者脈證도 亦有所受者矣라

【國譯】中風傷寒의 맥을 論함

仲景이 浮緩한 脈으로 中風의 脈을 삼고 浮澁하면서 緊한 것으로 傷寒의 脈을 삼았으며, 中風은 脈이 나고 傷寒은 脈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왜 그런가? 『內經』에 ‘滑脈은 陰氣가 유여한 것이고, 澁脈은 陽氣가 유여한 것이니 陽氣가 유여하면 몸에 熱이 있으나 脈이 나지 않고, 陰氣가 유여하면 脈이 많이 나고 몸은 차가워진다.’¹²⁾고 하였다. 대저 陰陽은 알맞게 平衡을 유지하고자 할 따름이니, 陽氣가 부족하면, 陰氣가 들어와 올라타므로 陰이 유여하게 되고, 陰氣가 부족하면 陽氣가 들어와 따르므로 陽이 유여하게 된다. 風邪가 衛氣를 손상하면 榮氣는 병이 들지 않으므로 陽은 부족하고 陰은 유여하게 되니 이러한 까닭에 中風은 脈이 浮緩하고 반드시 脈이 많이 난다.

7) 成无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48. “陰陽相搏名曰動 陽動則汗出 陰動則發熱 形冷惡寒者 此三焦傷也 若數脈見于關上 上下無頭尾 如豆大 厥厥動搖者 名曰動也. 辨脈法”

8)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18. “太陽病 脈浮而動數 浮則爲風 數則爲熱 動則爲痛 數則爲虛 頭痛發熱 微盜汗出而 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下之 動數變遲 膈內拒痛 胃中空虛 客氣動膈 短氣躁煩 心中懊憹 陽氣內陷 心下因硬則 爲結胸 大陷胸湯主之”

9) 成无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49. “脈浮而緊者 名曰弦也 弦者狀如弓弦 按之不移也 脈緊者 如戰索無常也 脈弦而大 弦則爲減”

10) 成无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66. “變化上乘 陰陽相干 風則浮虛 寒則牢緊 沈潛水畜 支飲急弦 動則爲痛 數則熱煩.”

11)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39. “少陰病 飲食入口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手足寒 脈弦遲者 此胸中實 不可下也 當吐之 若膈上有寒飲乾嘔者 不可吐也 當溫之 宜四逆湯”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文化研究院. p. 59. “澁者 陽氣有餘也 滑者 陰氣有餘也 陽氣有餘 爲身熱無汗 陰氣有餘 爲多汗身寒 陰陽有餘 則無汗而寒.”

寒邪가 榮氣를 손상하면 衛氣는 병이 들지 않으므로 陰은 부족하고 陽은 유여하게 되니 이러한 까닭에 傷寒은 脈이 浮澁하면서 緊하고 또한 汗이 나지 않는다. 仲景이 두 脈證을 변별한 것도 또한 각각의 다른 邪氣를 받은 바가 있다는 것이다.

9. 論表證未罷未可下

【原文】

仲景이 云凡傷寒之病은 多從風寒得之니 始表中風寒이리가 入裏則不消矣에 擬欲攻之어든 當先解表라야 乃可下之라 若表已解而內不消하면 大滿大實하고 堅有燥屎야야 自可除下之니 雖四五日이나 不能爲禍也라 不宜下而便攻之면 內虛熱入하야 挾熱遂利하고 煩躁諸變이 不可勝數하야 輕者는 困篤하고 重者는 必死矣라 大抵風寒入裏不消하면 必有燥屎하고 或大便堅秘하니 須是脈不浮하고 不惡風寒하고 表證罷라야 乃可下之라 大便不通은 雖四五日이나 未能爲害하니 若不顧表而便下之면 遂爲協熱利⁽¹⁾也라

【注釋】

(1) 協熱利: 表邪가 없어지지 않아 熱이 나면서 下法으로 인하여 下利하는 것을 말한다.

【國譯】表證이 풀리지 않으면 瀉下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논함

仲景이 '무릇 傷寒病은 대부분 風寒을 쫓아 열게 되니 처음에는 表部에 風寒이 中하였다가, 裏部로 들어가더라도 사라지지 않게 되니 攻下하고자 하려거든 마땅히 먼저 表邪를 풀어야 瀉下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表證이 이미 풀렸는데 안에서 邪氣가 사라지지 않으면 크게 腹滿 實痛하고 단단하게 燥屎가 생기니 이때는 瀉下하여 제거할 수 있고, 비록 四五日이 지나더라도 禍를 입지는 않는다. 瀉下하는 것이 옳지 않는데 攻下하면 內部가 虛하게 되어 熱邪가 들어가서 熱을 수반한 下利가 그치지 않게 되고 煩燥와 같은 다른 여러 變症이 매우 많아지게 되니, 가볍게

는 괴로워할 것이고, 심하게는 반드시 죽게 될 따름이다. 대저 風寒이 裏部로 들어가 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燥屎가 생기고 혹은 大便이 딱딱하게 굳을 것이니, 모름지기 脈이 浮하지 않고 惡風寒이 없고 表證이 사라지는 때를 기다려 下法을 사용할 수 있다. 大便이 통하지 않는 것은 비록 四五日이 지나도 害가 되지는 않는데, 만약 表證을 살피지 않고 바로 下法을 사용하면 마침내 熱을 수반한 下利를 하게 될 것이다.

10. 論中暑脈不同

【原文】

仲景이 云脈虛身熱은 得之傷暑라하고 又云其脈弦細芤遲라하니 何也오 素問에 曰寒傷形하고 熱傷氣라하니 蓋傷氣而不傷形은 卽氣消而脈虛弱이니 所謂弦細芤遲가 皆虛脈也라 仲景이 以弦爲陰하고 而朱肱이 亦云中暑脈細弱이라하니 卽皆虛脈也를 可知矣라

【國譯】中暑證에 脈이 같지 않음을 논함.

仲景이 '脈이 虛하고 몸에 열이 나는 것은 暑邪를 받은 것이다.¹³⁾'라고 하고, 또 '그 脈이 弦細하면서 芤遲한다.'고 하였으니, 왜 그런 것인가? 『素問』에 '寒邪는 形을 손상하고, 熱邪는 氣를 손상한다.¹⁴⁾'고 하였으니 대개 氣는 손상했지만 形은 손상하지 않은 것은 氣가 衰하고 脈이 虛弱하므로 弦細芤遲한 脈은 모두 허약한 것을 나타내는 脈이다. 仲景이 弦脈을 陰脈으로 보았고, 朱肱도 역시 中暑脈은 細弱하다고 하였으니 즉 모두 虛脈인 것을 알 수 있다.

11. 論傷寒須早治

【原文】

仲景이 云凡作湯藥에 不可避晨夜¹⁾니 覺病이면 須

13) 成无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109. "脈盛身寒得之傷寒 脈虛身熱得之傷暑."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文化研究院. p. 23.

史即宜便治하야 不等早晚이리야 即易愈矣라 如或差遲면 病即傳變하야 雖欲除治나 必難爲力이리하니 今之醫者는 不究根源하고 執以死法하야 必汗之於四日之前하고 必下之於四日之後하니 殊⁽¹⁾不知此大綱也라 又云甚者는 病不服藥하고 猶得中醫⁽²⁾라하니 此爲無醫處而設也니 苟大小便不通을 可待其自差乎아 蓋前後不得洩면 必腹脹하야 不過數日而死矣라 又況結胸과 瘀血과 發狂과 發黃과 發斑之類도 未有勿藥而喜者라 智者는 知變이어늘 愚者는 執一하니 所以取禍也라 須是隨病淺深과 在表在裏하야 早爲治療면 如救火拯溺이니 庶易差也라 素問에 云邪風之至가 疾如風雨 故로 善治者는 治皮毛하고 其次是 治其肌하고 其次是 治筋脈하고 其次是 治六腑하고 其次是 治五臟하니 治五臟者는 半死半生也라하니라 扁鵲이 望齊桓侯而走者는 其以此歟인저

【校勘】

1) 不可避晨夜: 「傷寒例」에는 '不可避晨夜 時日吉凶'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殊: 오히려, 매우 수.

(2) 中醫: 『千金要方』에 '上醫는 治未病하고 中醫는 治欲病하고 下醫는 治已病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의 中醫는 유사 의료업자를 말한다.

【國譯】 모름지기 傷寒은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함

仲景이 '湯藥을 만들 때는 새벽이나 밤을 가리지 말아야 하니, 병이 들면 모름지기 바로 치료하여 이르고 늦은 것을 따지지 말아야 쉽게 치유할 수 있다. 만일 치료가 늦어지면 곧 病이 전변되어 비록 치료를 하고자 하나 반드시 힘쓰기 어렵게 된다.¹⁵⁾'고 하였으니, 요즘의 의사들이 근원을 알지 못하고 活法이 아닌 고루한 방법만을 고집하여, 병이든지 4일 전에

15) 成无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113.

는 반드시 汗法만을 쓰고, 4일 후에는 下法만을 쓰고 있으니 아직까지 기본 원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가운데 심한 사람들은 병이 나도 藥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사 의료업자만을 찾으니 이는 의사가 없는 경우를 위해서 설치한 제도이니 진실로 大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하겠는가? 일반적으로 大小便을 보지 못하면 반드시 배가 부르게 되어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것이다. 또한 더구나 結胸, 瘀血, 發狂, 發黃, 發斑 등의 類도 藥을 쓰지 않고는 좋아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變化의 도리를 알거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만을 고집하니 禍를 부르는 이유이다. 모름지기 病이 얕은가 깊은가와 表에 있는지 裏에 있는지에 따라 빨리 치료하면 이는 불 속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데서 건져내는 것과 같으니 거의 쉽게 치료할 수 있다. 『素問』에 '邪氣가 몸에 침습하는 것이 비바람과 같이 빠르니, 치료를 잘하는 사람은 皮毛를, 그 다음은 肌部를, 그 다음은 筋脈을, 그 다음은 六腑를, 그 다음은 五臟을 치료하니 五臟을 치료하는 것은 반은 살고 반은 죽게 된다.¹⁶⁾'고 하였다. 扁鵲이 齊나라의 桓侯를 보고 치료하지 않고 달아난 것¹⁷⁾은 이 때문일진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文化研究院. p. 23.

17) 史記扁鵲倉公列傳에 "扁鵲이 제나라에 들렀을 때, 제나라의 桓侯가 그를 객으로 맞이하였다. 扁鵲은 들어가 조정에서 알현하고, '君께는 피부에 질환이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깊어지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환후는 '과인에게는 병이 없습니다.'고 말하였다. 편작이 나가자 환후는 좌우사람들에게 '醫員이 이익을 좋아하구나. 병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병이 있다고 하여) 공을 얻으려 하니.'라고 말하였다. 그 뒤 5일 만에 편작은 다시 알현하고 말하였다. '군은 혈맥에 병이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깊어지겠습니다.' 환후가 말하였다. '과인에게 병이 없습니다.' 편작이 나가니, 환후가 좋아하지 않았다. 그 후 5일에 편작이 다시 뵈고 말하였다. '군께 병이 있는데, 腸胃의 사이에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깊어지겠습니다.' 환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편작이 나가니 환후는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 뒤 5일 만에 편작이 다시 알현하여 환후를 바라보고는 물러나와 달아났다. 환후가 사람을 시켜서 그 까닭을 물으니, 편작이 말하기를 '병이 피부에 있을 때에는 湯藥과 바르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혈맥에 있으면 鍼石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것이 장과 위 사이에 있을 때에는 酒醪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이 골수에 있으면, 비록 사명(司命)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병이 골수에 있으니, 신은 어떻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 5일 만

져.

12. 論發熱惡寒

【原文】

仲景이 云假令寸口脈微를 名曰陽不足이니 陰氣上入陽中이면 卽洒淅⁽¹⁾惡寒也요 尺脈弱을 名曰陰不足이니 陽氣不陷入陰中이면 卽發熱也라하니 此는 謂元受病以然也라 又云陽微卽惡寒하고 陰弱卽發熱하니 此는 醫發其汗하야 使陽氣微하고 又大下之하야 令陰氣弱이라하니 此는 謂醫所病而然也라 大抵陰不足하면 陽往從之 故로 陽內陷하니 卽發熱하며 陽不足하면 陰往乘之 故로 陰上入陽中하야 卽惡寒하며 陰陽이 不歸其分 故로 寒熱交爭하니 是以로 發熱而惡寒也라 故로 孫思邈이 云有熱엔 不可大攻之니 熱去卽寒至矣라하니라

【注釋】

(1) 洒淅(쇄석): 물을 뿌리듯이 오싹하는 모양.

【國譯】發熱 惡寒에 대해 논함

仲景이 ‘가령 寸口脈이 微한 것을 陽不足이라하니 陰氣가 陽 속으로 올라와서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이 惡寒하고, 尺脈이 弱하면 陰不足이니 陽氣가 陰中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바로 發熱한다.18’고 하였으니, 이는 元氣에 병이 날 때 생기는 양상을 말한 것이다. 또 ‘陽이 微弱하면 惡寒하고 陰이 微弱하면 發熱하니, 이는 의사가 과다하게 땀을 내서 陽氣가 微弱해진 것이고 또한 과다하게 瀉下시켜 陰氣가 약해진 것이다.19’고 하였으니, 이것이 의사가 만든 病의 양상이다. 무릇 陰이 不足하면 陽이 가서 따르므로 陽氣가 內陷하니 發熱하며, 陽이 부족하면 陰이 가서 올라타

에 환후는 병이 들었으므로 사람을 시켜 편자를 불렀으나, 편자는 이미 도망하고 없었다. 환후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11”라고 되어 있다.

18) 成无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p. 81-82.

19) 成无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p. 59-60.

므로 陰氣가 陽 속으로 올라가 惡寒하며, 陰陽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면 寒熱이 교차해서 다투니 이러한 까닭에 發熱하면서 惡寒하게 된다. 그러므로 孫思邈이 ‘熱이 있을 때는 심하게 熱을 치지 말아야 하니 熱이 사라지면 바로 寒이 이르기 때문이다.20’라고 하였다.

13. 論風溫證

【原文】

仲景이 云太陽病에 發熱而渴하고 不惡寒者는 爲溫病이라 若發汗已 身灼熱者는 名風溫이니 風溫爲病은 脈陰陽⁽¹⁾俱浮하며 自汗出하며 身重하며 多眠睡하며 鼻息必鼾하며 語言難出이라 若被下者는 小便不利하며 直視失溲하고 若被火者는 微發黃色하고 劇則如驚癇⁽²⁾하며 時癩瘖⁽³⁾이라하니라 又云陽脈浮滑하고 陰脈虧弱에 更遇於風하면 變成風溫이라하니 大抵溫氣 大行한대 更感風邪면 卽有是證이라 今當春夏하야 病此者多어늘 醫作傷寒漏風⁽⁴⁾治之는 非也라 不可火며 不可下며 不可大發汗이로대 而仲景無藥方하니 古法에 或謂當取手少陰火 足厥陰木하야 隨經所在而取之커니 如麻黃薏苡仁湯⁽⁵⁾ 葦蕤湯⁽⁶⁾之輩라 予以謂敗毒⁽⁷⁾獨活⁽⁸⁾ 續命⁽⁹⁾에 減麻黃去附子면 益佳라

【注釋】

(1) 脈陰陽: 寸口部の 寸尺을 말한다.

(2) 驚癇(경간): 놀라서 발생하는 癇疾로 한곳만을 주시하고 몸이 뻣뻣하고 오그라드는 病證.

(3) 癩瘖(체중): 瘦瘖(계중)이라고 하며, 瘦는 근육이 당기는 것이고 瘖은 근육이 이완되는 病證이다.

(4) 漏風(누풍): 風邪에 감촉되어 땀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는 病證.

(5) 麻黃薏苡仁湯:

(6) 葦蕤湯: 治風濕兼療冬溫 及春月中風傷寒 發熱頭眩 痛喉 咽乾舌強 胸內疼 痞滿 腰背強 萎蕤三分 石

20) 孫思邈. 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2.

膏一兩杵細 白薇半兩 麻黃半兩湯泡焙乾稱 川芎半兩 葛根半兩生者可二兩尤佳 大羌活去蘆半兩 甘草炙半兩 杏仁去皮尖雙仁者槌碎半兩 青木香一分冬一兩始春用半兩炒 右剉如麻豆大 每服五錢 水一盞半 煎一殘日三四服 『類證活人書·卷十七』

(7) 敗毒散: 治傷風瘟疫風濕 頭目昏眩 四肢痛 憎寒壯熱 項強目睛疼 尋常風眩拘攣 風痰 皆服神效 羌活洗去土 獨活去蘆 前胡去蘆 柴胡去苗 芎藭 枳殼麩炒去穢 白茯苓去皮 桔梗去蘆頭 人參以上各一兩 甘草半兩炙 右件搗羅爲末 每服三錢 入生薑二片 水一盞 煎七分 或沸湯點亦可 老人小兒亦宜日三二服 以知爲度瘴煙之地 或瘟疫時行 或人多風痰 或處卑濕脚弱 此藥不可闕也 『類證活人書·卷十七』

(8) 獨活散: 治傷風溫瘴等疾 羌活去蘆頭 獨活去蘆頭 人參 細辛去灰土華陰者佳 白茯苓去皮 枳殼去心麩炒通黃用 防風去蘆 黃芩細堅者 麻黃沸湯泡三次焙乾稱 甘草細剉炒赤 蔓荊子 甘菊花已上各一兩 石膏水飛過二兩 右十三味 搗羅爲末 每服三錢 水一盞 生薑三片 薄荷四五葉 同煎至七分 去滓 微熱呷 如年高者以川芎代黃芩 『類證活人書·卷十七』

(9) 小續命湯: 治中風及脚氣痺弱 不能轉側者 又兼治小兒慢驚風 附子 人參 川芎 麻黃 防己 黃芩 桂枝 甘草 各一兩 右剉如麻豆大 每服五錢 水一盞半 煎至一盞 去滓 取八分 清汁入生薑汁 再煎一二沸 溫服日三夜二 若柔痙自汗者 去麻黃 夏間及病有熱者 減桂枝一半 冬及始春 去黃芩 『類證活人書·卷十七』

【國譯】風溫證에 대해 논함

仲景이 ‘太陽病에서 熱이 나면서 갈증이 있고 惡寒하지 않는 것은 溫病이다. 만일 發汗을 다 시켰는데 몸에 화끈화끈하게 熱이 있는 것은 風溫이니, 風溫病이라는 것은 寸尺脈이 모두 浮하며 식은 땀이 나며 몸이 무거우며 자꾸 졸립고 코가 막히며 숨쉴 때 코에서 소리가 거칠며 말하기가 힘든 것이다. 만일 下法을 썼다면 小便이 不利하고 한곳만을 주시하며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린다. 만일 火法을 썼다면 약하게 發黃證이 생기고, 심하면 놀라서 쓰러지거나 때때로 근육이 뒤틀려 오그라들거나 늘어진다.’²¹⁾

라고 하였다. 또한 ‘陽脈이 浮滑하고 陰脈이 弱한데 다시 風邪에 감촉되면 변하여 風溫이 된다.’²²⁾고 하였다. 대개 溫邪가 크게 유행할 때 風邪에 갑자기 감촉되면 이러한 證이 된다. 봄 여름이 되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거늘 의사가 傷寒의 漏風證으로 보고 치료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다. 火法, 下法, 大發汗法을 써서는 안되므로 仲景도 藥方을 두지 않았다. 옛날 방법이 있는데, 或者는 手少陰 心經, 足厥陰 肝經을 取하여 病證이 있는 곳에 지나가는 經脈을 取하거나, 麻黃薤苳仁湯, 薤薤湯 등의 類를 사용하면 된다 하였다. 나는 참조하여 敗毒散, 獨活散, 小續命湯에 麻黃을 줄이고 附子를 빼서 사용하였는데 더욱 좋았다.

14. 論溫瘧證

【原文】

仲景이 云若脈陰陽俱盛한대 重感於寒者면 變成溫瘧⁽¹⁾이라하니 故로 朱肱이 初虞世하야 以小柴胡 白虎之類에 加桂以治之라 此는 卽仲景所謂溫瘧이니 瘧之一證也라 今庸醫 見前人有此治法하야 不問是何瘧證하고 但見發寒發熱하야 一概治之하니 疎矣라 大抵瘧證多端하야 有暑瘧⁽²⁾하며 有食瘧⁽³⁾하며 痺瘧⁽⁴⁾하며 脾寒⁽⁵⁾하고 而千金에 又有五臟所受不同하고 六腑之中에 止有胃瘧⁽⁶⁾一證하야 種類最多어늘 安得一概而論이리오 瘧瘧者는 但熱不寒이니 當用白虎호 食瘧者는 中有伏積이니 當下而去之호 至於中暑脾寒하야 此二證은 若水火相反이라 素問에 曰夏傷於暑면 秋爲瘧瘧이라하고 又曰夏暑汗不出者는 秋成風瘧이라하니 蓋暑伏於中이리라 卽秋氣乃發 故로 先熱後寒하며 熱多寒少하며 頭昏痛하니 虛則發戰하야 汗出一時라야 乃

21)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1. “若發汗已 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失溲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則如驚癇 時瘳瘳 若火熏之一逆尙引日 再逆促命期”

22) 成无己.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100. “陽脈浮滑 陰脈濡弱者 更遇於風 變爲風溫.”

止라 蓋心惡暑하고 心不受邪而包絡受之하니 包絡은 衆涎所聚라 暑伏於涎하니 心豈若脾寒하야 厚朴草果 所能去也며 豈若溫瘧하야 柴胡黃芩所能除也리오 非 砒沙腦麤之屬이면 不能入이라 故로 暑瘧脾寒患者多 로대 而醫不識病하야 妄投以藥하니 邪未退하고 眞氣 先受病하니 所以連綿不差也라 予曾精意深究瘧病一科 하야 須是辨脈察證하고 窮究得病之淵源 故로 十治十 中하야 無有失者라 衆人은 以瘧爲難治나 予獨以爲易 하니 要在辨其種類와 識其先後라 素問瘧論에 甚有妙 處하니 當思而得之라

【注釋】

(1) 溫瘧(온학): 內部에 伏邪가 있는데, 여름에 暑熱을 感受하여 발생하는 一種의 瘧疾로 先熱後寒하며 熱重寒輕하고 口渴하여 喜涼飲하고 舌紅하며 脈象은 輕按하면 浮數하고 重按하면 無力한 等症이다.

(2) 暑瘧(서학): 暑邪를 感受하여 발생하는 瘧疾로 大熱 大煩 大喘 大渴하며 熱이 寒보다 심하다.

(3) 食瘧(식학): 음식물을 無절제하게 섭취하여 中脘에 痰이 생긴데다 風邪가 이를 틈타 침입하여 배가 고프지만 먹지 못하고 먹으면 脇下支滿하며 腹滿하고 자주 嘔逆하는 것이다.

(4) 癘瘧(단학): 瘧疾의 邪氣를 感受한 後 裏熱이 熾盛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發作時에 發熱할 뿐이고 惡寒하지 않으며, 煩躁氣粗하고, 胸悶 欲嘔 等症을 나타낸다.

(5) 脾寒(비한): 몸이 차고 복통이 있으며 열이 날 때는 腸鳴을 수반하고 腸鳴이 멎으면 땀이 나는데, 치료 시에는 足太陰脾經의 穴에 침을 놓는다.²³⁾

(6) 胃瘧(위학): 胃에 瘧疾의 邪氣가 침입하여 발작할 때는 배가 고프지만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먹으면 곧 복부가 매우 그득하여 脹滿한다.

【國譯】溫瘧證에 대해 논함

仲景이 ‘陰陽脈이 모두 盛한데 거듭 寒邪에 감촉

되면 變하여 溫瘧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朱肱이 당시에 세상을 걱정하여 小柴胡湯과 白虎湯에 桂枝를 加하여 治療하였다. 이것이 곧 仲景이 말한 溫瘧이며, 瘧疾의 한 證일 따름이다. 요즘의 兪穎한 의사들이 前人들이 만든 이와 같은 治法만을 보아 瘧證의 종류도 가리지 않고 오로지 寒熱만을 보고서 한가지로 治療하니 거리가 멀 뿐이다. 대개 瘧證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暑瘧 食瘧 癘瘧 脾寒 등이 있으며, 또한 『千金要方』에 의하면 각각이 五臟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하였고, 六腑中에는 별도로 胃瘧 한 證이 있으므로 종류가 가장 많거늘 어찌 能히 한가지로 합쳐서 논할 수 있겠는가? 癘瘧은 단지 열만 나고 惡寒하지 않으니 마땅히 白虎湯으로 治療하고, 食瘧은 中焦에 積복한 積체물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下法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하고, 中暑 脾寒에 이르러서는 이 두 證은 水火가 서로 반대된 것이다. 『素問』 ‘여름에 暑邪에 손상되면 가을에 瘧瘧이 된다.’²⁴⁾고 하였고, 또 ‘여름에 暑邪가 더운데 땀이 나지 않는 자는 가을에 風瘧이 된다.’²⁵⁾고 하였으니, 대개 暑邪가 中焦에 積복하여 있다가 가을의 기운이 이르면 바로 발병하게 되므로 먼저 熱이 나고 나중에 寒이 생기며, 熱이 많고 寒이 적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니 邪氣가 약해지면 戰慄하면서 땀이 어느 정도 나면서 바로 그친다. 대개 心은 暑氣를 싫어하고 心은 邪氣가 침범할 수 없어 心包絡이 받게 되니, 包絡은 모든 침(涎)이 모이는 곳이므로 暑邪가 涎에 積복하게 되니, 心이 어찌 脾寒처럼 厚朴 草果 등으로 사기를 물리칠 수 있겠으며, 어찌 溫瘧처럼 柴胡 黃芩으로 제거할 수 있겠는가. 砒沙나 龍腦 麝香의 종류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暑瘧과 脾寒의 환자가 많으나 의사가 病을 알지 못하여서 아무렇게나 약을 투여하니 邪氣가 물러나지 못하고 眞氣가 먼저 손상되니 지속적으로 治療하더라도 낫지 않는 까닭이 된다. 내가 精意를 다하여 瘧病의 과목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하여 모름지기 脈을 分辨하고 證候를 살피며 病이 발생하는 연원을 窮究한 까닭에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文化研究院. p. 136.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文化研究院. p. 16.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文化研究院. p. 20.

치료하는 것마다 다 적중하여 실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瘧病은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나 나는 홀로 쉽다고 여기니, 요점은 바로 종류를 구분하고 선후를 아는 것에 있다. 『素問·瘧論』에는 절묘한 구절이 있으므로 마땅히 생각해보고 그것을 얻어야 할 것이다.

IV. 結 論

이상과 같이 『傷寒發微論·卷下』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表裏虛實에 대하여 表裏가 모두 實한 것은 陽盛陰虛이니 下法을 사용하면 낫고, 表裏가 모두 虛한 것은 陽虛陰盛이니 發汗을 시키면 낫는다고 주장하였고, 仲景의 麻黃湯類는 表實의 證을, 桂枝湯類는 表虛의 證을, 承氣湯類는 裏實의 證을, 四逆湯과 理中湯의 類는 裏虛의 證을 치료하는 방제로 보았다.

2. 滑脈에 대하여 翁脈 奄脈 沈脈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滑脈이라고, 翁脈은 퍼져나가는 것이니 脈狀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퍼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갑자기 沈脈이 나타난다는 것은 脈狀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奄脈은 잠깐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니 잠깐 동안 비이삭을 만지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3. 大黃이 울체된 熱을 씻어 내리며 낡은 것을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이르게 하므로 傷寒病에 중요한 약이 된다고 하여, 현재 『傷寒論』에 나타나 있는 大柴胡湯에 반드시 넣어야 만이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仲景은 大脈 浮脈 數脈 動脈 滑脈을 陽脈으로, 沈脈 澁脈 弱脈 弦脈 微脈을 陰脈으로 보았는데, 『脈訣』에서는 動脈을 陰脈으로 弦脈을 陽脈으로 본 것에 대해, 雜病에는 한 가지 脈만 나타나고 傷寒에는

여러 脈이 겹쳐 나타나니 傷寒에서 浮脈과 大脈이 陽脈이라고 말한 것은 動脈 數脈 滑脈의 類를 겸한 것이니 陽脈이고, 沈脈과 細脈이 陰脈이라고 말한 것은 澁脈 弦脈 數脈의 類를 겸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5. 發熱惡寒에 대하여 陰이 不足하면 陽이 가서 따르므로 陽氣가 內陷하니 發熱하며, 陽이 부족하면 陰이 가서 올라타므로 陰氣가 陽 속으로 올라가니 惡寒하며, 陰陽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면 寒熱이 교차해서 다투니 이러한 까닭에 發熱하면서 惡寒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6. 風溫證에는 火法, 下法, 發汗法을 써서는 안된다고 하고, 병중에 따라서 敗毒散, 獨活散, 小續命湯에 麻黃을 줄이고 附子를 빼서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7. 論溫瘧證에서는 瘧疾에는 暑瘧 食瘧 瘴瘧 脾寒 胃瘧 등의 종류가 많으므로 한가지 방법으로만 치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각각의 증후에 대하여 瘴瘧은 단지 熱만 나고 惡寒하지 않으니 마땅히 白虎湯으로 치료하고, 食瘧은 中焦에 잠복한 적체물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下法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하고, 中暑 脾寒 두 證은 水火가 서로 상반된 것이니 證에 따라 치료를 달리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V. 參考文獻

<단행본>

1. 許叔微. 傷寒九十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2. 許叔微. 傷寒發微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3. 許叔微. 傷寒百證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4.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5.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註解傷寒論.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6. 朱肱. 增註南陽活人書. 서울. 三和精版社. 1987.
7. 扁鵲. 難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7.
8. 蔡仁植 譯. 金匱要略精解.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6.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0.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4.
11. 孫思邈. 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K C I